

신문·잡지·문서를 통해 본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과 의의*

이 태 우**·최 재 목***·김 은 령****

- I. 머리말
- II. 1947~1953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활동 개관
 - 1.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 2. 1952년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 3. 1953년 제3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 III. 신문·잡지·문서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 1. 신문 보도기사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 2. 신문 기고문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 3. 잡지 기사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 4. 조선산악회 문서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 I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산악회와 과도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해방 후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전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조사활동이었다. 이 조사는 해방 후 독도영유권을 확립하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NR F-2019S1A5B8A02103036).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제1저자 / twlee62@ynu.ac.kr

*** 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 제2저자 / choijm@ynu.ac.kr

****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원, 교신저자 / er803@hanmail.net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최초의 대규모 학술조사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활동에 대한 현재까지 수집한 신문·잡지·문서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신문 보도기사가 23건, 신문 기고문이 24건으로 총 47건이다. 이들 신문기사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학술조사대의 출발소식, 울릉도 현지 활동 보도와 학술조사대의 결과물인 ‘귀환보고 강연회’ 그리고 ‘울릉도 보고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지에 수록된 조사단의 활동 관련 기사는 4편으로 대체로 울릉도·독도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신석호의 논문 「독도소속에 대하여」는 울릉도·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를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논증하였다. 조선산악회 문서는 대부분 조선산악회의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문서들이다. 이 문서에서 조선산악회는 이미 1947년 8월 학술조사 이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제1차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활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47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는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독도인식·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둘째, 1947년 학술조사단의 독도 표목설치는 한국의 독도영유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를 확고히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해방 후 과도정부와 한국민이 독도 주권수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의지를 형성한 조사였다. 이처럼 해방 후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독도현대사의 시작과 함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서막을 연 획기적 학술조사활동이었다.

◆ 주제어

울릉도, 독도, 조선산악회, 과도정부, 신문, 잡지, 문서

I. 머리말

한국의 역사서에서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자산도 등으로 불렸다. 독도라는 섬의 명칭은 1906년 울도 군수 심홍택이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인하여 국권을 상실하면서 독도라는 섬의 존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독도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심지어는 연합군을 상대로 일본의 영토를 소개하는 팸플릿에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일본 영토라고 거짓자료로 홍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1947년 4월에는 일본어 부들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불법어업을 하면서 독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울릉도 어민들을 폭행하고 총격을 가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¹⁾

눈앞에 보이는 문전옥답인 독도를 지적에 두고서도 독도어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울릉도 어민들은 울분에 찬 호소를 하게 되었고, 울릉군과 경상북도, 그리고 미군정 치하의 남조선과도정부(이하 과도정부로 약칭함)에까지 전달되었다. 일본의 독도침탈 소식을 처음 보도한 『대구시보』에 이어 1947년 7월 『동아일보』도 독도가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어업장으로서 또는 국방기지로써 우리의 당당한 판도에 속하였”²⁾다고 보도함으로써 독도영토 주권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해방된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일본의 영토야욕 소식을 접한 과도정부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³⁾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이러한 맥

1) 「왜적 일인의 얼빠진 수작 - 울릉도 근해의 작은 섬들」, 『대구시보』, 1947.6.20. 기사 참조.

2) 「판도에 야욕의 촉수 못버리는 일인의 침략성」, 『동아일보』, 1947.7.23.

3) 「독도문제 중대화」, 『동아일보』, 1947.8.3. ; 「우리의 국토 추(秋) 일본과장담(談)」,

락에서 독도영유권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산악회와 과도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해방 후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전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독도영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최초의 대규모 학술조사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수립 후 1952년 2차 조사와 1953년 3차 조사도 있었지만, 첫 번째 학술조사라는 역사적·상징적 의의와 함께 파견 조사단의 규모 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문·잡지·문서 등을 통해 해방 후 한국의 독도영토 수호사의 최초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1947년 8월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활동의 구체적 면모를 확인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해보는데 있다. 학술조사단의 규모와 일정, 참가 인력의 구성, 조사활동상황과 조사 종료 후 대국민 보고회 개최 등 조사단의 구체적 활동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한 몇 편의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 신문·잡지·문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목록화 하여 소개한 연구논문이나 저서는 없었다.⁴⁾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소개되었거나 또는 누락되었던 관련 자료들을 총괄 수집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주요 내용들을 소

『동아일보』, 1947.8.3. 기사 참조.

4) 조선산악회(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관련 선행연구로는 박현진,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 -1947년 및 1952-53년(과도)정부·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조사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권 3호, 2015, 61~96쪽; 송호열, 「1947년 독도 학술조사에 대한 지리적 고찰」, 『한국사지리학회지』 25권 3호, 2015, 33~50쪽; 유하영,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동북아연구』 35권 2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0, 65~92쪽; 이기석,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2017, 134~171쪽; 홍성근,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 『영토해양연구』 23, 2022, 129~165쪽; 정병준, 『독도1947』, 돌베개, 2010, 110~175쪽 참조.

개·검토해보고자 한다.⁵⁾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활동을 평가해보고 그 역사적 의미와 의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분류·분석해서 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조사단의 활동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대중매체인 신문과 잡지, 그리고 조선산악회에서 발행한 문서를 통해 학술조사단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볼 수 있도록 한다.⁶⁾ 이를 위해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활동 관련 신문 보도 기사와 기고문, 잡지, 문서 등의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날짜별로 목록화하였다.

연구범위는 1947년과 1952년, 1953년 세 차례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1947년 학술조사에만 국한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947년 학술조사가 해방 후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독도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라는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하 본론에서는 ‘신문·잡지·문서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Ⅲ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3차례에 걸쳐 실시된 ‘1947~1953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활동’의 대강을 개략적으로 개관해 보기로 한다.

5) 이 연구에서 소개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와 관련한 총 55건의 신문·잡지·문서 자료들은 원문과 함께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해방 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해제Ⅱ』(근간)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6)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는 신문·잡지자료 51건과 문서자료 4건이다. 구체적으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조사대상 신문은 『대구시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공업신문』, 『조선일보』, 『동광신문』, 『자유신문』, 『한성일보』, 『남신경제신문』, 『수산경제신문』, 『경성예과신문』 등 11종이다. 조사대상 잡지는 『건국공론』, 『국제보도』, 『사해』, 『신천지』 등 4종이며, 조사대상 문서는 『조선산악회 발행 문서』 4건이다.

II. 1947~1953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활동 개관

광복 후 한국정부는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는데,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1947~1953년 3차에 걸친 조선산악회(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파견이다. 물론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당시 미군정 치하에서 과도정부의 주도적 계획에 의해 실행되었다기 보다는 조선산악회의 계획과 준비가 먼저 진행되던 중,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과도정부의 독도조사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어 공동으로 조사대를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차에 걸쳐 진행된 학술탐사일자는 총 32일이며, 참가인원은 총 177명이다. 독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일자는 총 4일이다. 그렇지만 2차 조사 때는 독도에 도착하기 직전 미공군기의 ‘독도폭격’으로 인해 아쉽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던 ‘조선산악회’는 2차 조사 때부터는 ‘한국산악회’로 명칭을 바꾸어 조사를 계속 수행했다.

<표 1> 조선산악회(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일자 및 참가인원

구분	울릉도·독도 전체 조사일자	참가인원	독도조사일자	비고
1차 조사	1947.8.16.~ 1947.8.28.(13일)	80명(외부 17명 포함)	1948.8.20.(1일)	조선산악회, ‘남면 독도’ 표주 세움
2차 조사	1952.9.17.~ 1952.9.28.(12일)	36명	1952.9.22.(1일)	한국산악회, 미공군 독도폭격으로 독도인근에서 사진 촬영 후 철수
3차 조사	1953.10.11.~ 1953.10.17.(7일)	61명	1953.10.14.~ 1953.10.15.(2일)	한국산악회, 영도표지석 설치
계	총 32일	총 177명	총 4일	

7) 홍성근,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 『영토해양연구』 23, 2022, 129~165쪽 참조.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공식 명칭과 관련해서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학술조사대’ 또는 ‘학술조사단’이라는 명칭을 언론사마다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1차 조사 때는 ‘학술조사대’라는 명칭이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2차와 3차 조사 때는 ‘학술조사단’으로 명칭을 단일화해서 쓰고 있다. 아무래도 ‘조사대’보다는 ‘조사단’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의미와 성격을 보다 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령 독도’를 재확인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조사활동을 두고 조사단에 대해 상이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동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1차~3차 조사에 공통으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1.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⁸⁾은 1947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2주일간 조선산악회(한국산악회의 전신) 주최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조사활동에 참여한 국사관장 신석호는 당시 학술조사단 출범 상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독도는 ... 1945년 9월 5일자 미국이 최초의 대일방침을 발표하여 「일본의 주권은 본주(本州) 북해도 구주(九州) 사국(四國)의 4대도에 한한다」 하였고, 동년 10월 13일자 연합군최고사령부의 공시 제42호로서 일본인의 어업구역의 한계선을 결정한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을 발표하였는데 그 선이 독도 동방 12해리상을 통과하였으므로 우리는 독도가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된 줄 알았다. 그런데 1947년(단기 4280년) 7월 11일에 미국동위원회가 ... 대일기본정책을 발표하게 되자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여론을 일으켰다. 이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독도문제가 일어나 동년 8월 16일부터 약 2주일간 한국산악회 주최로 제1차 학술조사단이 독도에 가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⁹⁾

8) 1947년 미군정 과도정부 하에 조직된 “조선산악회” 주최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는 1948년 정부수립 후 “한국 산악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차(1952년), 제3차(1953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계속하였다.

1947년 미 극동위원회가 “대일기본정책”을 통해 일본의 영토를 “본주(本州) 북해도(北海島) 구주(九州) 사국(四國)의 제도(諸島)와 금후 결정될 수 있는 주위의 제도(諸小島)에 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전에 일본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하려던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과도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재확인하고 독도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1년 전부터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기획·준비하고 있었던 조선산악회의 협조를 받아 1947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을 독도로 파견하게 되었다.¹⁰⁾

1947년 8월 초 과도정부는 안재홍(安在鴻) 민정장관(民政長官)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8월 4일에는 중앙청에서 관계 공무원·전문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를 통하여 역사적 문헌 발굴과 현지조사 등 2가지 과제를 결정하고 독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47년 “울릉도학술조사 계획”은 조선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의 명령으로 “조선산악회 주최, 문교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선산악회 문서를 보면 그동안 산악회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제4회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1946년 가을부터 울릉도 조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던 중 과도정부의 요청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파견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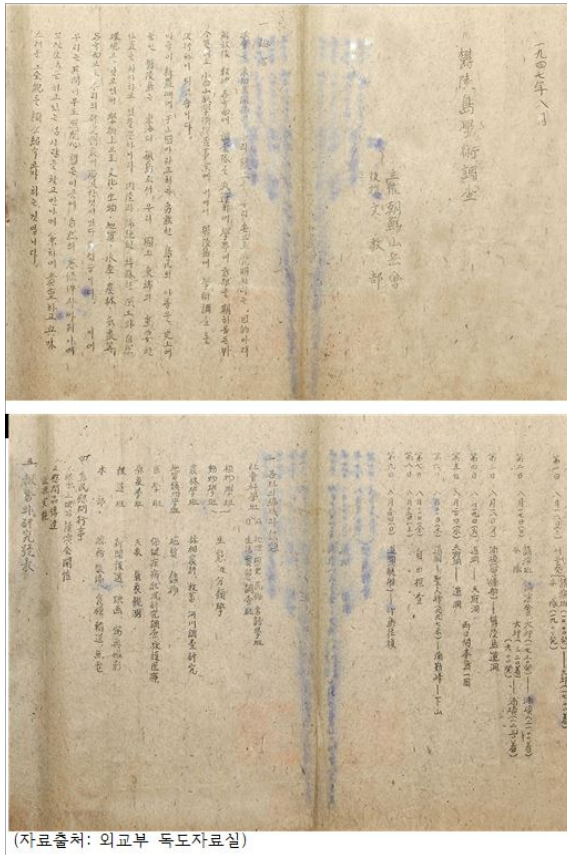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은 과도정부 독도조사단 4명(국사관장 신석호, 외무처 일본과장 추인봉, 문교부 편수관 이봉수, 수산국 기술사 한기준)과 조선산악회장 송석하(宋錫夏)를 대장으로 한 각 분야 전문가 63명, 경상북도청 공무원 2명, 제5관구 경찰직원 11명을 포함하여 총 80명에 달하는 대규모 학술조사대였다.¹¹⁾

9) 신석호, 「독도의 내력」, 『독도』, 대한공론사, 1965, 16쪽.

10) 유하영,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동북아연구』 35권 2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0, 67~68쪽.

11) 신석호, 「독도소속에 대하여」, 『사해(史海)』 1권 1호, 1948.12. 90쪽; 홍종인, 「울릉

조선산악회에서 작성한 「1947년 8월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계획서에는 이번 학술조사가 조선산악회 주최, 문교부 후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4쪽으로 된 이 계획서에는 학술조사의 취지, 일정표, 각 반의 편성과 과제, 도민위문행사, 보고와 연구발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¹²⁾



(자료출처: 외교부 독도자료실)

<그림 1> 1947년 8월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계획서

도 학술조사대 보고기(1), 『한성일보』, 1947.9.21.; 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한국산악회50년사』, 1996, 81~82쪽 참조.
 12) 조선산악회, 「1947년 8월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1947.8.

이 계획서 자체에는 의도적으로 ‘울릉도 학술조사’라고만 한정되어 ‘독도’ 조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독도조사단 파견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계획표상에는 8월 22~23일 ‘자유탐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표상에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탐사가 독도 학술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변화무쌍한 독도 주변의 기상상황으로 인해 독도조사 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자유탐사’로 정해놓았다가 1947년 8월 18일 울릉도에 도착 직후 기상상황이 좋은 8월 20일을 정해 가장 먼저 독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루 24시간도 되지 않은 짧은 조사시간이었지만 조사단은 독도를 실지 조사한 후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시켜주는 2개의 표목을 세우고 돌아왔다.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선산악회의 계획과 준비 하에 과도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 민·관 협동조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과도정부가 민정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 수색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가 관계 기관·전문가 회의를 통해 독도현지조사단 파견을 결정한 점, 또 조사단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8월 16일 서울을 출발한 조사대가 8월 18일 포항에서 해안경비대 소속 대전환(大田丸)호에 승선해 울릉도로 향한 점 등은 당시 학술조사가 정부 차원의 “승인과 지원”에 따른 공식조사활동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¹³⁾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의 울릉도·독도 종합조사 후 서울로 귀환한 조사단은 보고강연회와 전람회 개최, 조사보고서 작성과 언론 보도, 개별적 신문·잡지 기고와 자료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결과를 결산, 정리하였다. 그러나 조사단의 활동 결과물들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대부분 소실되거나 망실되어서 상세한 활동내용과 활동 전모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아쉽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신문·잡지 및 약간의 문서를 통해 학술조사단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13) 박현진,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관협동 학술과학조사 - 1947년 및 1952~53년 (과도)정부·한국산악 회의 울릉도·독도조사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0권 3호, 2015, 65쪽.

2. 1952년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1947년 조선산악회 주최로 실시되었던 제1차 학술조사에 이어, 1952년에는 단체명을 한국산악회로 바꾸어 제2차 독도조사단이 다시 구성되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해양주권선언”(‘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이 있는 직후, 1952년 1월 20일 일본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일본 외무성은 “강화조약에서 우리에게 귀속된 우리의 독도까지도 한국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령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¹⁴⁾

1952년 제2차 울릉도·독도학술조사에서도 정부와 산악회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한국산악회 주최와 문교부·외무부·국방부·상공부·공보처 후원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이었다. 박병주 교수가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단기 4285년 7월)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단기 4285년 9월)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에 1952년 독도학술조사단이 구성된 과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¹⁵⁾

한국산악회는 제2차 학술조사단 파견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출발에 제(際)하여」라는 이 성명서에서 조사단 파견의 목적이 “독도가 우리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우리 영토”¹⁶⁾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은 총 36명으로 구성되었다. 2차 학술조사단의 대장은 1차 학술조사 때 부대장이었던 홍종인(洪鍾仁)이 대장을 맡게 되었다. 2차 학술조사 때에는 잠수부도 동행하였다. 조사대와

14) 유하영, 앞의 논문, 69쪽.

15) 정병준, 앞의 책, 829쪽.

16) 한국산악회, 「鬱陵島·獨島 學術調査團 출발에 際하여」, 『1952~1953년 독도 측량-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관련 박병주 교수 기증자료-』, 국회도서관 편, 날짜 미상, 122~123쪽.

함께 간 잠수원에는 해녀도 17명이 포함되었다. 이때 해녀 잠수부들이 동원된 이유는 독도 주변 지형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¹⁷⁾

당시 정부는 조사단에 범정부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조사단은 태풍으로 인해 예정보다 5일 늦게 9월 17일 부산항에서 교통부 부산해사국 등 대순항선 진남호(鎭南號: 305톤)에 승선하여 다음날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측량·측지반 박병주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1952년 9월 22일 독도 인근 해상에 도착했을 때 군용기 3대가 나타나 진남호의 존재를 무시한 채 계속 독도를 폭격하였다. 어쩔 수 없이 조사단은 상륙을 포기하고 독도 주위를 순회하며 사진만 찍고 철수하였다. 당시 홍 단장의 전문(電文)에 의하면 학술조사단은 측지반을 중심으로 약 3일간 독도에 체류하며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었다.¹⁸⁾

당시 상황을 한국산악회 부회장인 홍종인(洪鍾仁)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¹⁹⁾

보고서

1. 한국산악회의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일행 36명은 교통부 소속선 진남호로 16일 오전 무사히 울릉도 동항구에 도착하여 19일 곧 독도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독도에는 최근에도 미군비행기가 틀림없으리라고 인정되는 비행기 1대가 폭탄을 던져서 출어중의 어민이 화급히 퇴피(退避)치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조사단에서 즉시 해군본부 총참모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본조사단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군관계당국에 연락하기를 청탁하고 19일의 행동을 유예하고 있음.
2. 독도의 폭격사건인 즉 지난 9월 15일 오전 11시경 울릉도 통조림공장 소속 선 광영호가 해녀 14명과 선원 등 합 33명이 소라 전복 등을 따고 있던 중,

17) 김정태, 「『한국산악회30년사』 중 「1951년 9월 18일~26일: 제주도과량도학술조사대 파견」, 『한국산악』 11, 1977, 35쪽.

18) 박현진,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 - 1947년 및 1952~53년 (과도)정부·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조사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제 60권 3호, 2015, 70~71쪽 참조.

19) 외무부정무국, 『독도문제개론』, 1955, 43쪽.

1대의 단발비행기가 나타나서 독도를 두 번 돌면서 4개의 폭탄을 던졌는데 이 때문에 어민들이 곧 퇴피에 착수하자 비행기는 남쪽 일본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독도 출어에 대해서는 울릉도 어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 이어서 4월 25일 한국공군고문관을 통하여 미군 제5공군에 조회했던 바 5월 4일부터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또 극동군의 연습폭격목표로 되어 있지 않다는 회답이 있어서 한국 공군총참모장으로부터 경상북도를 통하여 울릉도에도 통보되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등의 경고도 없이 폭탄투하가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 도민들은 1948년 6월 30일²⁰⁾의 30명의 사망자를 낸 미공군의 폭격사건의 참담한 지난 기억을 다시 생각하고 불안공포를 느끼며 미군당국의 통보를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독도의 어업상황을 들건대 금년 봄에는 미역 만도 2억 엔 이상을 뜯고, 지금도 소라와 전복이 많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난한 어민들은 그 채취를 위하여 정부고위층에서 신속히 안전책을 강구하여 보장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관계관으로서는 절해고도의 국민으로 하여금 믿을 것을 믿게 하여 생활근거를 더 유리하게 해결시켜 주도록 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본조사단의 해군총참모장으로부터 우리 공군당국과 미 해군당국과의 만전의 연락결과와 통지가 있기를 기다려 불일 중 독도로 출발하여 측지반을 중심으로 한 일부단원은 3일간 독도에 체재하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장 홍종인

제2차 학술조사단에게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데 총예산은 정부 예산 2,957만 9,000원과 한국산악회 자체 예산 300만원을 포함해 총 3,257만 9,000원이 책정되었다. 자체예산 300만원은 참가자 60명의 등록금(회비) 5만 원씩을 계산한 것이며 이를 제외한 예산 부족액은 2,975만 9,000원이었다.²¹⁾

10월 9일에는 부산시의회 의사당(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울릉

20) 1948년 6월 8일 있었던 독도폭격사건 일자의 오기임. 미군의 독도폭격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울릉도와 동해안 연안 어민들의 숫자는 현재까지 16명으로 밝혀져 있다.

21) 유하영, 앞의 논문, 71쪽 참조.

도·독도 학술조사 보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에서는 학술조사단 원으로 참가했던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홍종인이 「독도문제」, 박병주가 「독도측량계획」, 유홍렬이 「역사상으로 본 독도」, 홍이섭이 「독도 이야기」, 김원용이 「울릉도의 유물과 유적」, 이지호가 「울릉도의 땅과 사람」, 전찬일이 「동해수산과 독도」, 임기흥이 「울릉도의 식물과 육수(陸水)」, 김정태가 「독도조사 운행(運行)」을 각각 발표하였다.²²⁾

3. 1953년 제3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1953년 5~7월 사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수산시험장의 순시선·시험선 등이 수시로 독도 해역을 불법 침입하고 독도 불법상륙을 저질렀다. 1953년 5월 28일 일본인의 독도 불법상륙과 한국 어민의 철수 강요 및 불법심문, 6월 27일 역시 독도 불법상륙과 한국 어민 철수 강요 및 불법심문, 그리고 일본 영토 표목 설치 등은 식민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던 모든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였다. 특히 7월 3일 경북경찰국이 일본이 세워 놓은 ‘일본령’ 주장 표목·게시판을 철거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자 한국 국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²³⁾

1953년 7월 7일 외무부는 국방부에 일본정부가 독도에 ‘일본령 표식’을 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군함정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건조사를 위해 7월 8일 해군군함 한 척을 독도로 파견했고, 이 군함은 약 일주일간 초계활동을 벌였다. 7월 10일 경상북도의회는 대통령에게 독도 수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건의했다.²⁴⁾

일본이 이러한 도발적 행동을 취한 것은 당시 진행 중이던 제2차 한일회담(1953.4.15.~7.13.)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은 한일회담과 어업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독도에 대한 불법침입과 한국인 심문 등 강제력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외교와 실력을 함께 행사한다

22) 「독도조사단 9일 보고회 개최」, 『동아일보』 1952.10.8.

23) 정병준, 앞의 책, 829쪽.

24) 유하영, 앞의 논문, 73쪽 참조.

는 전략이었다.

1953년 7월 8일 국회 제19차 본 회의는 “산악회를 포함한 강력한 현지조사단을 독도에 파견함에 원조하라”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 따라 한국산악회가 제3차 조사단 파견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악회는 1953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제3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를 작성,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대원 38명과 경상북도청 공무원 3명과 울릉도 관계자 20명 등 총 61명으로 조사대를 구성하였다.²⁵⁾

제3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의 목적과 과제는 1952년 조사에 비해 보다 명확해졌다. 1953년도에는 일본의 독도 불법점거와 영토표지 설치 등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단의 파견목적 제1항이 독도와 인근 수역에 대한 조사로 제시되었다. 3차 학술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독도와 부근 수역의 과학조사(지질, 기상, 해양, 생물, 수산, 역사, 지리) 및 독도 측지와 지도 작성 등이었다. 이것은 1947년 및 1952년 조사의 미비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인 동시에 국제법 측면에서도 실효지배의 증거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²⁶⁾

현재 국회도서관에는 1953년 독도조사와 관련해 두 개의 계획서가 남아 있다. 1952년의 경우처럼 한국산악회는 7월과 9월 두 차례 계획서를 수립했다.²⁷⁾ 한편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 표지는 최초 1947년 8월 20일 제1차 학술조사단이 동도에 두 개의 표목을 세웠는데, 오른쪽 표목에는 ‘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朝鮮 鬱陵島 南面 獨島)’라고 썼고, 왼쪽 표목에는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 기념(鬱陵島, 獨島 學術調査隊 紀念)’이라고 썼다.²⁸⁾ 그러나 조사대가 독도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독도에 불법 상륙한 일본인들은 이 표목을 철거하고 ‘일본영토 표목’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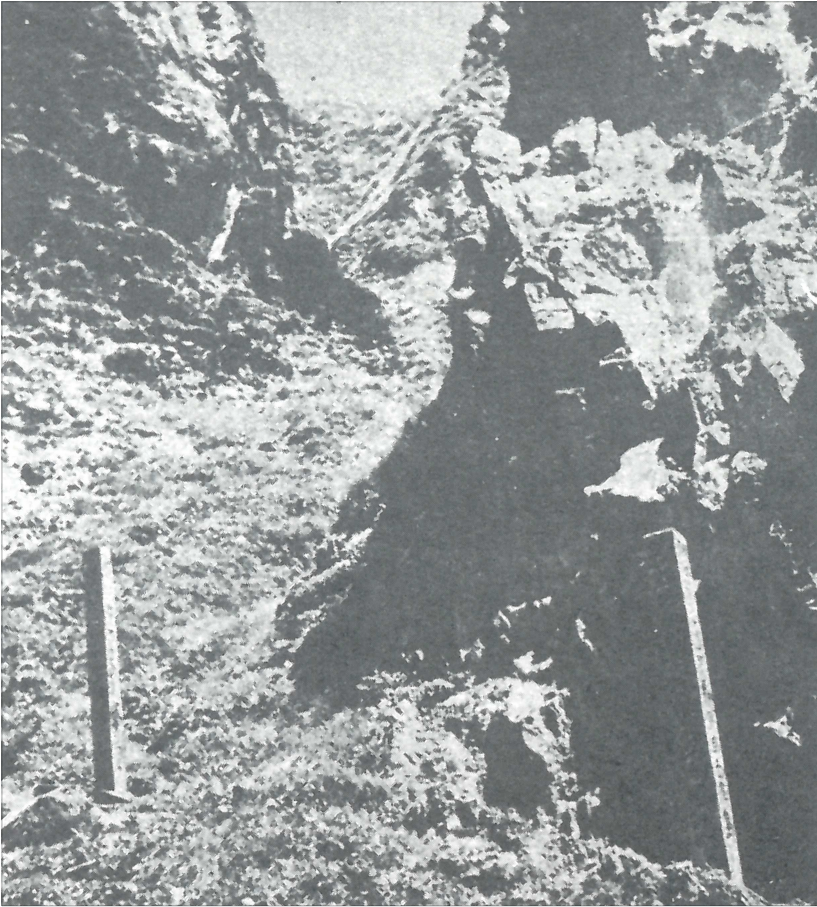
25) 국회도서관(박병주) 편, 『박병주 교수 기증자료』(1953년 7월 계획서), 143쪽.

26) 유하영, 앞의 논문, 74쪽 참조.

27) 『박병주교수 기증자료』, 143~153, 155~159쪽.

28) 정병준, 앞의 책, 138~139쪽 참조. 특히 139쪽 홍종인이 촬영한 영토표목 사진 참조.

하였다. 이후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경비대가 독도에 주둔할 때까지 한 일 간에 뺏고 재설치하는 ‘표목전쟁’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그림 2>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이 설치한 표목

1953년 10월 15일 제3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단장 홍종인)은 전 해인 1952년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이 설치하려고 준비했지만

미군의 독도폭격연습으로 인해 설치하지 못했던 암석제질의 영토표지석을 독도에 설치하고 돌아왔다.

Ⅲ. 신문·잡지·문서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1. 신문 보도기사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신문에 보도된 기사들은 대부분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활동에 대한 기사로, 현재까지 확인된 기사 건수만 최소한 23건에 이른다.²⁹⁾ 1947년 8월 조선산악회 탐사가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한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보도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도발과 정부의 대응’,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출발소식’,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귀환 보고회와 강연회 소식’, ‘울릉도·독도 풍광 사진’ 그리고 ‘울릉도민이 조사단 활동보고 전시회를 보기 위해 상경’했다는 내용을 주로 기사화하고 있다. 조사단의 활동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을 목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활동 관련 신문 보도기사

순번	기사 제목	신문명	날짜
1	왜적(倭賊) 일인(日人)의 얼빠진 수작	대구시보	1947.06.20
2	판도(版圖)에 야욕(野慾)의 촉수(觸手) 못버리는 일인(日人)의 침략성	동아일보	1947.07.23

29) 이 논문에서 누락된 신문기사들은 최근에 발간된 홍성근, 『광복 후 독도와 언론보도 2: 1945~1954년의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21 참조.

3	울릉도답사대, 조선산악회서 파견	한성일보	1947.08.03
4	독도문제 증대화	동아일보	1947.08.03
5	우리의 국토 추 일본과장 담	동아일보	1947.08.03
6	독도는 우리 관도, 역사적 증거문헌 발견, 수색회서 맥사령(司命)에 보고	동아일보	1947.08.05
7	독도는 우리 땅, 사적 증거문헌 발견	동광신문	1947.08.07
8	독도조사단 16일 등장	대구시보	1947.08.17
9	울릉도학술조사대 출발	자유신문	1947.08.20
10	울릉도학술조사대, 현지착 활동에 착수	서울신문	1947.08.22
11	독도를 탐사	대구시보	1947.08.22
12	울릉도학술조사대, 독도답사, 의외의 해구발견	조선일보	1947.08.23
13	성인봉을 답과, 과학 하는 조선	공업신문	1947.08.28
14	독도사진공개, 본사 최촉탁 촬영	대구시보	1947.08.30
15	독도사진	대구시보	1947.08.31
16	울릉도사진	대구시보	1947.09.03
17	울릉도사진	대구시보	1947.09.04
18	울릉도사진	대구시보	1947.09.05
19	울릉도조사대의 귀환보고강연회	서울신문	1947.09.09
20	울릉도 보고, 10일에 강연회	공업신문	1947.09.09
21	독도의 국적은 조선, 입증할 엄연한 증거자료 보관	공업신문	1947.10.15
22	울릉도 보고전	서울신문	1947.11.05
23	울릉도전시회에 도민대표가 상경	대구시보	1947.11.08

이 보도 자료를 신문사별, 보도기사 건수별로 보면 『대구시보』에서 9건, 『서울신문』 3건, 『동아일보』 4건, 『공업신문』 3건과 『조선일보』, 『동광신문』, 『자유신문』, 『한성일보』에서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을 비롯, 중앙에서 발행되는 『동아』, 『조선』, 『한성일보』와 『공업신문』 등은 학술조사단의 ‘울릉도 현지 활동’ 보도와 학술조사단의 결과물인 ‘귀환보고 강연회’, ‘울릉도 보고전’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가 속해 있는 경북지역인 대구에서 발행되는 『대구시보』의 1947년 6월 20일자 기사 외 8건에서는 조사단 파견, 독도탐사, 전시회 관련 보도와 함께 울릉도·독도의 사진을 실고 있다. 이 중 『대구시보』의 촉탁기자로 파견되어 학술조사단에 합류한 최계복이 촬영한 독도 사진은 광복 후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된 최초의 독도 사진으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학술조사단이 독도조사를 마친 후 발표한 성과로 『공업신문』(1947.10.15.)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동물학적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조선과 대륙 대만에만 분포되어 있고 일본에는 절대로 없는 「대만 흰나비」가 이 섬(독도)에 있는 것은 동물학상으로도 조선의 섬인 것을 확실히 증명해준다.”³⁰⁾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도정부가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을 파견하게 되는 경위를 보도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 「왜적(倭賊) 일인(日人)의 얼빠진 수작」(『대구시보』, 1947.06.20.), 「관도에 야욕의 촉수 못버리는 일인의 침략성」(『동아일보』, 1947.07.23), 「독도문제 중대화」(『동아일보』, 1947.08.03.), 「우리의 국토 추(秋) 일본과장 담」(1947.08.03.) 등의 보도기사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비판하면서 과도정부가 이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독도문제 중대화」 기사는 “과도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중대시하여 민정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를 조직하여 4일 상오 10시부터 중앙청 민정장관실에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되었다.”³¹⁾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는 과도정부의 대응을 보도하고 있다.

같은 날 추인봉 외무부 일본과장은 “이 문제는 우리 국토에 관한 만큼 중대한 문제다. 독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현지조사를 하여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하고 우리국토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여야 한다.”³²⁾고

30) 「독도의 국적은 조선, 입증할 엄연한 증거자료 보관」, 『공업신문』, 1947.10.15.

31) 「독도문제 중대화」, 『동아일보』, 1947.08.03.

발표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공식적으로 독도조사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독도영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연합군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하여 전 세계로부터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정받고자 했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당시로부터 75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 보도기사를 검토해보았을 때, 결국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파견 10여 일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과도정부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과 시급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전년도부터 이미 울릉도·독도 탐사를 준비 중이었던 조선산악회의 협조와 과도정부의 후원으로 전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문 기고문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1947년 8월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현지 조사 활동과 관련해 신문 지상에 발표한 ‘기고문’은 현재까지 24건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학술조사단에 함께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학술조사 보고문 형식으로 기고한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기사를 보도한 신문으로는 『남선경제신문』, 『대구시보』, 『서울신문』, 『수산경제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한성일보』 그리고 경성대학 교내신문인 『경성예과신문』 등 총 8종에 이른다. 신문에 게재된 전체 기고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2) 「우리의 국토 추 일본과장 담」, 『동아일보』, 1947.08.03.

<표 3>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활동 관련 신문 기고문

순번	기고자	기사 제목	신문명	날짜
1	조선산악회 학술조사대	동해 신비경인 독도의 생태에 황홀	자유신문	1947.08.24
2	편집부	독도는 이런 곳①	남선경제 신문	1947.08.27
3	편집부	독도는 이런 곳②	남선경제 신문	1947.08.28
4	권상규	동해의 고도, 울릉도기행(1)	대구시보	1947.08.27
5	권상규	울릉도기행(2)	대구시보	1947.08.29
6	송석하	수력발전도 가능	자유신문	1947.09.01
7	편집부	독도 가제에 대하여(해독불가)	자유신문	1947.09.01
8	석주명	울릉도의 연혁(해독불가)	서울신문	1947.09.02
9	특과원	절해의 울릉도: 학술조사대 답사(1)	조선일보	1947.09.04
10	김원용	울릉도의 여인	서울신문	1947.09.06
11	석주명	울릉도의 연혁(해독불가)	서울신문	1947.09.02
12	구동련	울릉도기행(1)	수산경제 신문	1947.09.20
13	구동련	울릉도기행(2)	수산경제 신문	1947.09.21
14	구동련	울릉도기행(3)	수산경제 신문	1947.09.23
15	구동련	울릉도기행(4)	수산경제 신문	1947.09.24
16	홍종인	울릉도 학술조사대 보고기(1)	한성일보	1947.09.21
17	홍종인	울릉도 학술조사대 보고기(2)	한성일보	1947.09.24
18	홍종인	울릉도 학술조사대 보고기(3)	한성일보	1947.09.25
19	홍종인	울릉도 학술조사대 보고기(4)	한성일보	1947.09.26
20	방종현	독도의 하루	경성대학 예과신문 13호	1947.09.28
21	윤병익	가제(於獨島)(1)	서울신문	1947.11.15
22	윤병익	가제(於獨島)(2)	서울신문	1947.11.18

23	홍종인	동해의 내 국토, 슬프다 유형의 기록: 답사회고	조선일보	1948.06.17
24	홍종인	울릉도 보고전을 열면서	서울신문	1947.11.15

신문기고문은 내용 면에서 볼 때 답사의 결과보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신문기고문에서는 주로 울릉도·독도의 지리와 풍광, 생태, 풍습, 답사 후 소감과 회고, 독도강치 등을 신비롭게 묘사하며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총 8종의 신문지면을 통한 24건의 기고문에는 처음 울릉도를 찾는 감회부터 울릉도 생활 풍습, 바다생물, 식물은 물론 차후 울릉도의 발전에 대한 제안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된 조사 후기가 게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경제신문』에는 포항지국의 구동연이 ‘울릉도 기행’이란 주제로 울릉도의 풍광과 지리 생활습속 등을 4번으로 나누어 기고하였다. 그리고 『한성일보』에서는 ‘학술조사대 보고기’라는 주제로 홍종인의 글을 4번에 나누어 신고 있다. 이 24건의 기고문 중에서 특히 홍종인의 ‘학술조사대 보고기’가 조사대의 파견 목적, 참가 인원, 임무, 각 팀별 편성 등 당시 상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의 부대장으로 참가했던 홍종인은 이 ‘보고기’에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³³⁾

1947년의 하기(夏期) 사업으로 소백산맥 학술조사행사의 뒤를 이어 획기적인 규모로 울릉도 학술조사대를 파견하게 된 것은 울릉도가 동해의 고도(孤島)로 그 실정이 소개된 바가 전부터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왜적(倭敵)과의 전쟁 중 십수년 간은 군사 요충지로서 본토와의 일반적 왕래가 매우 어려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실정을 알 수 없었다. 지도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에서도 언제까지나 절해의 고도로 버려둘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였던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리하여 **작년 가을부터 의도한 것이** 이제 실현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동남향으로 해상 48해리에 있는 무인도로 그 귀한이 문제 되리라고 전

33) 홍종인, 「鬱陵島 學術調査隊 報告記(1)」, 『한성일보』, 1947. 9. 21.(강조 필자)

해지는 독도행은 실행 전까지는 외부 발표를 시종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우리가 당초부터 계획해온 기습적인 여정이었던 것이다.

홍종인은 이 ‘보고기’에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계획이 ‘작년 가을’, 즉 1946년 가을부터 이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독도조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실행에 옮긴 ‘기습적인 여정’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과도정부가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1947년 중반부터 독도조사를 계획한 것이라면, 조선산악회의 독도조사 계획은 그보다 약 1년 가까이 더 빨리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조선산악회가 학술조사를 주최·주관하였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과도정부의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³⁴⁾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더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선각자들의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³⁵⁾

4회에 걸쳐 『한성일보』에 게재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보고기’에서 홍종인은 이번 학술조사에 참가한 조사대원들의 조직편성과 인적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직편성과 인원, 임무, 참가자 명단 등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³⁶⁾

<표 4>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편성

구분		인원	임무	비고
조	본부	15명	대장, 지휘, 총무, 식량, 장비, 수송	

34) 실제로 1947년 5월, 조선산악회에서 위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과건(시기·방법)”이 당면사업 안건으로 제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산악회, 「위원 피선 및 제22회 위원회 소집 통지의 건」, 1947.5.12. 참조.

35) 송호열, 「1947년 독도 학술조사에 대한 지리적 고찰」,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5권 3호, 2015, 48쪽.

36) 홍종인, 「울릉도 학술조사대 보고기(1)」, 앞의 신문, 81~82쪽 참조.

조선산악회	사회과학 A반	10명	역사, 지리, 사회, 경제, 고고, 민속, 언어	
	사회과학 B반	11명	생활실태조사	본부원 겸무
	동물학반	6명	동물	
	식물학반	9명	식물	
	농림학반	4명	임상, 농경, 목축, 하천 조사	
	지질광물반	2명	지질, 광물	
	의학반	8명	보건질병상황 연구조사, 구호, 의료	
	보도·영화반	8명	사진, 신문보도, 영화제작	
	전기통신반	2명	무선 통신	
	소계	63명		
과도정부	독도조사단	4명	정부 부처 공무원(외무처 일본과장, 문교부 편수관, 수산국 기술사, 국사관장)	
	경북도청직원	2명	관할지역(경북) 공무원	
	제5관구직원	11명	관할지역(경북) 경찰직원	
	소계	17명		
	총원	80명		

조사대의 편성을 보면 모두 10개 조사반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조선산악회에서 파견한 관련 전문가들이 63명이며, 과도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은 중앙정부공무원과 경북도청공무원, 제5관구 경찰공무원 등 모두 17명으로 확인된다. 민·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총 인원은 8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산악회에서 파견한 10개 조사반에 편성된 전문가들과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 지방공무원들의 현재까지 파악된 명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인적 구성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조선산악회	본부	15명	송석하(대장), 홍종인(부대장), 도봉섭(부대장)김정태, 김정호, 김홍래, 남행수, 현기창, 주형렬, 정인호, 전탁, 신업재, 이문업, 김재문, 지원홍	
	사회과학 A반	10명	방종현, 김원룡, 김용경, 이원우, 유하준, 정홍현, 이정호, 손계술, 임창순 등	
	사회과학 B반	11명	홍종인(부대장), 정건우, 조병채, 장수환 등	홍종인 부대장겸무
	동물학반	6명	석주명, 윤익병, 임문규, 송상현, 유진해, 이희태	
	식물학반	9명	도봉섭(부대장), 심학진, 최기철, 이우로, 유경수, 정영호, 홍성언, 이규완 등	도봉섭 부대장겸무
	농림학반	4명	김종수, 이창복, 노희원, 유시승	
	지질광물반	2명	육승식, 주수달	
	의학반	8명	조중삼, 전언기, 이정주, 김홍기, 전영호, 석주일, 박용덕, 채숙	
	보도·영화반	8명	현일영, 임주식, 박종대, 최계복, 김득조, 고희성	
	전기통신반	2명	신언모, 최창근	
소계	63명			
과도정부	독도조사단	4명	추인봉(외무처 일본과장), 이봉수(문교부 편수관), 한기준(수산국 기술사), 신석호(국사관장)	
	경북도청직원	2명	권○○(지방과장) 외 직원 1명	
	제5관구직원	11명	성명미상	
	소계	17명		
총원	80명			

3. 잡지 기사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내용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관련 자료에서 신문지상이 아닌 잡지에 발표된 글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현재까지 4편이 확인되었다.

<표 6>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활동 관련 잡지 기사

순번	기고자	기사 제목	잡지명	날짜
1	홍구표	무인독도 답사를 마치고(기행)	『건국공론』 제3권 제5호	1947.11
2	송석하	고색창연한 역사적 유적 울릉도를 찾아서	『국제보도』	1947.12
3	석주명	울릉도의 인문(해독불가)	『신천지』 제3권 제2호	1948.2
4	신석호	독도소속에 대하여	『사해』 제1권 제1호	1948.12

잡지에 발표된 글로는 먼저 홍구표의 「무인독도 답사를 마치고(기행)」이 1947년 발간된 『건국공론』 11월호에 실려 있다. 내용은 18일 본토에서 출발하여 21일 포항항을 출발할 때까지의 울릉도 독도 답사에 관한 것으로 울릉도로 가는 동해상에서의 풍광과 동해상에 위치한 무인도인 독도의 위치와 동식물에 대한 것, 그리고 울릉도 독도의 모습과 생활상들을 필자의 감성을 섞어 자세히 밝히고 있다.

두 번째 글은 학술조사대장인 송석하의 「고색창연한 역사적 유적 울릉도를 찾아서」가 『국제보도』 1947년 12월호에 소개되어 있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울릉도의 과거 역사와 현재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울릉도의 풍광과 오징어 손질하는 여인네들의 모습, 오징어 말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의 역사와 지형, 오징어 어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 글은 석주명이 1948년 2월 『신천지』에 「울릉도의 인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인데 아쉽게도 망실된 글자가 많아서 판독이 어렵다.

네 번째 글은 신석호의 「독도소속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1948년 11월에 발간된 『사해』 1호에 실려 있다. 내용은 ‘독도의 지세와 산물’, ‘독도의 명칭’, ‘삼봉도와 독도’, ‘울릉도 소속문제’, ‘독도-울릉도 개척과 독도’, ‘일본의 독도강탈’, ‘일본 영유 이후의 독도’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잡지에 발표한 글들은 대체로 울릉도·독도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홍구표, 송석하, 석주명의 글은 울릉도·독도 조사에 참가한 후 기행문, 감상문의 수준에서 조사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는 짧은 조사 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어려워져서 그런지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주로 신비로운 울릉도·독도의 자연경관을 경탄하거나 육지생활과 동떨어진 울릉도 사람들의 생업모습과 낯선 풍습을 기술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만 신석호가 『사해(史海)』 1948년 12월호에 발표한 「독도소속에 대하여」는 울릉도·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를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논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4. 조선산악회 문서에 나타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활동을 기획하고 주최한 기관인 <조선산악회>에서 발행한 관련 문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³⁷⁾ 앞에서 언급

37) 최근에 발표된 홍성근의 논문(2022)에서 추가로 발견된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논문 작성 중 뒤늦게 확인한 관계로 본 논문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 선행연구성과를 반영하게 되면 조선산악회 문서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홍성근,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 정부의 역할」, 『영토해양연구』 23, 2022 참조.

한 홍종인이 쓴 '학술조사대 보고기'에서도 보았듯이 <조선산악회>가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계획한 것은 이미 1946년 가을경이었다. 아래에 소개하고 있는 문서는 1947년 5월과 7월에 작성된 것으로, 1947년 8월 학술조사 이전에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활동 관련 조선산악회 문서

순번	작성자	제목	날짜
1	조선산악회	위원 피선 및 제22회 위원회 소집 통지의 건	1947.5.12
2	조선산악회	해안경비대 공문	1947.7.30
3	조선산악회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	1947.8
4	조선산악회	1947년도 조선산악회 사업개황(보고)	1947

조선산악회에서 작성한 문서들은 학술조사단 파견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다. 문서 4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1947년도 조선산악회 사업 개황(보고)」는 조선산악회의 연간 사업 성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조선산악회가 월별로 수행한 사업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울릉도·독도 조사 활동 전후 계획과 결과 보고, 전람회 일정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후 귀환 보고 강연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9월 10일 국립과학박물관 강연회, 11월 10~19일 동화백화점 보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전람회에는 사진과 표본, 특산품 등을 전시하였는데 입장 인원을 2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산전람회(11월30일~12월4일), 대구전람회(12월6일 ~ 12월10일)까지 관람 인원을 합하면 족히 5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신문·잡지를 통해서도 전국민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지만, 많은 인원이 전시회를 통해서도 독도에 대

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독도의 존재와 위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에게 파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위원 피선 및 제22회 위원회 소집 통지의 건」(1947. 5. 12)에는 산악회 정기총회에서 선거 결과 선출된 각 위원들에게 당선통지와 소집통지를 알리는 문서이다. 학술조사단 파견 약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소집된 위원회의 안건에서 몇 가지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중 당면사업의 건에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파견(시기·방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조사단 파견을 가장 우선적인 당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백산맥 학술조사대 파견 등 기존에 실시해 오고 있던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파견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조선산악회→해안경비대 공문」(1947. 7. 30)은 조선산악회 회장 송석하가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사업을 위해서 해안경비대사령관에게 학술조사단 수송을 위한 함정 지원을 요청한 공문서이다. 조사단 파견 15일 전에 작성한 문서로 울릉도·독도 조사를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인다.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문서로 조사단 수송을 위한 군함 파견 협조요청 문서이다. 조사단은 해안경비대 함정인 ‘대전환(大田丸)’을 지원받아서 포항에서 울릉도·독도를 왕복하였다. 이 사실은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조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조사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네 번째, 「1947년 8월 울릉도·독도 학술조사」(1947.8)는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가 문교부의 후원으로 조선산악회 주최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학술조사 출발 이전에 작성된 문서로 실제 내용은 「1947년 8월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위한 계획서」이다. 문서 자체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8월 22일~23일 자유탐사 계획이 독도탐사를 위해 설정된 기간이었을 것이다. 실제 독도조사는 울릉도 도착 직후 8월 20일 실시한 것으로 볼 때 독도조사가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볼 수 있다.

계획표에는 학술조사의 취지와 조사단 전체 일정표, 조사반의 편성과

역할을 제시해놓았다. 또한 도민위문행사를 계획하여 영화상영과 강연회 개최, 위문품 전달, 울릉도민 대상 의료진료 등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보고와 발표를 하기로 계획을 잡아놓았다.

이상 4건의 조선산악회 문서들을 보면 과도정부의 조사단 파견 요청 약 1년 전부터 이미 조선산악회에서는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자 과도정부의 요청에 의해 협동으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을 파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단이 귀환 후 벌인 울릉도·독도 관련 각종 보고회와 전시회를 통해 수만 명의 국민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는 향후 국민이 한국령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IV. 맺음말

1947년 8월 16일~28일 13일간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조사단의 활동 결과는 신문과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소개한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실시 전후 국내 신문·잡지 등을 통해 학술조사단의 출발 소식과 함께 울릉도·독도의 인문·자연·지리·사람 등을 소개한 자료들이 주종을 이룬다.

조사단 관련 신문 보도기사와 신문 기고문을 합쳐 현재까지 파악된 신문 기사 건수는 총 47건에 이르며, 1947년 8월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시작한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이들 신문 기사 자료를 보면(2021년

38) 지금까지 소개된 자료는 2021.12.31 현재까지 1947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 활동 관련 조사된 자료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련 자료의 조사·발굴을 통해 자료들을 추가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12월 31일 현재) 『대구시보』 11건, 『서울신문』 9건, 『한성일보』 5건, 『동아일보』 4건, 『자유신문』 4건, 『수산경제신문』 4건, 『공업신문』 3건, 『조선일보』 3건, 『남산경제신문』 2건, 『동광신문』 1건, 『경성대학 예과신문』에서 1건씩 확인된다.

이 중 ‘신문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 학술조사대의 출발 소식, 울릉도 현지 활동 보도와 학술조사대의 결과물인 ‘귀환보고 강연회’ 그리고 ‘울릉도 보고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기고문’에서는 주로 울릉도·독도의 지리와 풍광, 생태, 풍습, 답사 후 소감과 회고, 독도강치 등을 신비롭게 묘사하며 소개하고 있다. 처음 울릉도를 찾는 감회부터 울릉도 생활 풍습, 바다생물, 식물은 물론 차후 울릉도의 발전에 대한 제안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된 조사 후기가 게재되어 있다.

특히 울릉도가 속해 있는 경북지역인 대구에서 발행된 『대구시보』의 1947년 6월 20일자 기사 외 10건에서는 조사단 파견, 독도탐사, 전시회 관련 보도와 함께 울릉도·독도의 사진을 실고 있다. 이 중 독도 사진은 광복 후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된 최초의 독도 사진으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잡지에 소개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사보고 기사와 논문으로 작성되어 『신천지』, 『건국공론』, 『국제보도』, 『사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특히 조선산악회에서 작성한 문서 4건에는 전년도인 1946년 가을부터 이미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조선산악회와 과도정부가 함께 실시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해방 후 한국(과도)정부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었다. 또한 1947년 학술조사는 한국(과도)정부의 행정적, 실질적 독도 관리 시작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1953년~1956년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과 함께 현대 독도수호사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방 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시발점이 된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활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47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는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독도인식·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 독도조사의 결과는 1948년 한국정부 수립이후 한국의 독도인식과 여론형성, 독도정책수립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7년 학술조사를 계기로 독도문제의 중요성과 분쟁가능성, 한국영유권의 역사, 증거문헌, 일본 침략의 구체적 실상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³⁹⁾

둘째, 1947년 학술조사단이 펼친 활동 중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활동은 이들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하는 표목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독도 표목설치는 한국의 독도영유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를 확고히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⁰⁾

셋째,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해방 후 과도정부와 한국민이 독도주권수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의지를 형성하였고, 또한 독도수호를 위한 적극적 준비와 대처를 보여준 획기적 조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⁴¹⁾

넷째,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의 조사활동은 과도기적 시기에 펼쳐진 민관 합동 관할권 행사의 “사실”이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국제법적·국내법적 해석과 적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에 관한 외교적 협상에서 기초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⁴²⁾

이상과 같이 해방 후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는 독도현대사의 시작과 함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서막을 연 획기적 학술

39) 정병준, 『독도1947』, 153쪽.

40) 정병준, 앞의 책, 138쪽.

41) 박현진, 앞의 논문, 82쪽.

42) 유하영, 앞의 논문, 87쪽.

신문 잡지문서를 통해 본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과 의의(이태우·최재목·김은령)

조사활동이었다고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조선산악회, 「위원 피선 및 제22회 위원회 소집 통지의 건」, 1947.5.12.
조선산악회,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 1947.8.
- 국회도서관 편, 『1952~1953년 독도 측량-한국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관련 박병주 교수 기증자료-』, 국회도서관, 2008.
외무부정무국, 『독도문제개론』, 외무부정무국, 1955.
정병준, 『독도1947』, 돌베개, 2010.
홍성근, 『광복 후 독도와 언론보도 2: 1945~1954년의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21.
- 김정태, 「『한국산악회30년사』 중 「1951년 9월 18일~26일: 제주도과량도학술조사대 파견」, 『한국산악』 11, 1977.
박현진,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 -1947년 및 1952~53년 (과도)정부-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조사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권 3호, 2015.
송호열, 「1947년 독도 학술조사에 대한 지리적 고찰」,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5권 제3호, 2015.
- 신석호, 「독도소속에 대하여」, 『사해(史海)』 1권 1호, 1948.
신석호, 「독도의 내력」, 『독도』, 대한공론사, 1965.
유하영,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동북아연구』 35권 2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0.
이기석,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2017.
한국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출발에 제(際)하여」, 『박병주 교수 기증자료』, 국회도서관, 2008.
한국산악회 편,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 『한국산악회50년사』, 한국산악회, 1996.
홍성근,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 『영토해양연구』 23, 2022.

신문 접지문서를 통해 본 1947년 조선산악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활동과 의의(이태우·최재목·김은령)

- 『대구시보』, 「왜적 일인의 얼빠진 수작 - 울릉도 근해의 작은 섬들」, 1947.6.20.
『동아일보』, 「관도에 야욕의 촉수 못버리는 일인의 침략성」, 1947.7.23.
『동아일보』, 「독도문제 중대화」, 1947.8.3.
『동아일보』, 「우리의 국토 추(秋) 일본과장담(談)」, 1947.8.3.
『동아일보』, 「독도조사단 9일 보고회 개최」, 1952.10.8.
『공업신문』, 「독도의 국적은 조선, 입증할 엄연한 증거자료 보관」, 1947.10.15.
『한성일보』, 홍종인, 「울릉도 학술조사대 보고기(1)」, 1947.9.21.

A Study on the Activities and Significance of the Ulleungdo-Dokdo Academic Research Group of the Joseon Mountaineering Association in 1947 through the Newspaper, Journal and document

Lee, Tae-woo
Choi, Jae-mok
Kim, Eun-ryoung

The first Ulleungdo-Dokdo Academic Research in 1947 jointly performed by the Joseon Mountaineering Association and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was an investigation activity that publicly declared Dokdo to the people of Korea's native territory after Korea's 1945 liberation from Japan. This research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was the first large-scale academic research performed by the government to establish sovereignty over Dokdo after liberation from Japan. Looking at the newspaper, magazine, and document data on the activities of the Ulleungdo and Dokdo Academic Research Group of the Joseon Mountaineering Association in 1947, first, there were 23 newspaper reports and 24 newspaper articles, a total of 47. From the contents of these newspaper articles, it can be seen that the news of the departure of the Academic Research Group, reports of local activities on Ulleungdo Island, and the results of the Academic Research Group, "Return Report Lecture" and "Ulleungdo Report Exhibition." There are four articles on the activities of the Research Group in the magazine, which generally mentions the history of

Ulleungdo and Dokdo, and in particular, Shin Seok-ho's paper "About Dokdo" argued the reason why Ulleungdo and Dokdo are Korean territory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and data. There are a total of four documents of the Joseon Mountaineering Association, and most of them report the annual business plan of the Joseon Mountaineering Association. In this documen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Joseon Mountaineering Association had already established an research plan and prepared for it before the academic research in August 1947. The significance of the academic investigation activities of Ulleungdo and Dokdo Island of the first Joseon Mountaineering Association in 1947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lleungdo and Dokdo Academic Research in 1947 has since become an important milestone in relation to the perception and policy of Dokdo by the Korean people and the government. Second, the establishment of the Dokdo-Signpost by the Academic Research Group in 1947 can be seen as establishing the basis for Korea's effective domination of Dokdo while solidifying Korea's ownership of Dokdo. Third, the Ulleungdo and Dokdo Academic Research in 1947 was a investigation in which the Interim Gov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Dokdo's sovereignty after liberation and formed public awareness and will. As such, the Ulleungdo and Dokdo Academic Research in 1947 after liberation was a groundbreaking academic survey activity that opened the beginning of Korea's effective domination of Dokdo with the beginning of the modern history of Dokdo.

keywords :

Ulleungdo, Dokdo, Joseon Mountaineering Association, Korean Interim Government Newspaper, Journal, Document

